

오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순간

- 이름: 김성은
- 근무기구 및 부서: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프로그램관리기획부
- 직위/직급: 인턴
- 지원경로: 2022 하반기 중남미 지역기구 파견인턴
- 근무기간: 2022.09.01. - 현재

외국어와의 인연

초등학교 6학년 처음으로 영어 학원에 간 순간 난 깨달았다. 외국어가 내 길이 되겠구나. 그 이후 막연히 통역사라는 직업을 내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처음으로 영국에서 한 달가량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나와 생김새와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을 형용할 수 없는 짜릿함과 기쁨을 주었다. 우연한 기회로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조금 배웠고 그 길로 학부 스페인어과에 입학했다. 1년간 멕시코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지구 반대편 남미는 한국과 또 다른 세계라는 걸 깨달았다. 음식, 문화, 교육 다방면에서 모든 것이 달랐지만 ‘스페인어’ 하나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환학생 이후 남미에서 이번엔 공부가 아닌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중 석사로 중남미학과에 입학하여 이번엔 멕시코가 아닌 칠레에서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인턴으로 6개월 동안 근무할 기회를 얻었다.

CEPAL(Comisión Económica Para America Latina y el Caribe, 영문명 ECLAC)은 UN 5개의 지역위원회 중 중남미, 카리브를 대표하는 지역 경제위원회로 멕시코와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소지역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제44번째 정회원국으로 ECLAC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을 통해 상반기, 하반기 1명 이상의 인턴을 파견하고 있으며 ECLAC과 한국의 협정을 통해 컨설턴트가 매년 1명씩 파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

턴십과 컨설턴트가 없었지만 2022년 다시 재개하여 1명의 인턴과 1명의 컨설턴트가 근무 중이다. 나는 프로그램 관리기획부(División de Planificación de Programas y Operaciones) 소속 프로젝트 관리팀(Unidad de Gerencia de Proyectos)에서 Gerardo 상사 직속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잖아

사실 이곳에서 일하기 전까지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렇다 할 스페인어 자격증도 없었고 영어성적도 남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이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 일상생활과 소통할 정도의 수준은 되었지만 정제된 스페인어는 배워본 적이 없었다. 다행히도 학부 조교를 하면서 업무 스페인어를 조금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도전해 보는 거야 하는 마음 하나로 인턴에 지원했고 실제 면접을 보러 갔을 당시 석사생은 단 둘뿐이었다. 석사생은 학사생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스스로 갖고 있었다.

첫 주는 ECLAC 발간물을 읽고 현재 ECLAC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라틴아메리카 대륙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해달라는 것이었다. 다만,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그 이후 한 달이 지나 하루는 상사가 따로 나를 사무실로 불러서 “너는 참 스페인어를 잘해. 근데 종종 내가 지시하는 업무를 이해 못 하는 거 같아.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말하는 거니?” 이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내가 회피해오던 것과 마주하게 되었다. 사실 가끔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시 물어보기보다 스스로 이해한 대로 업무를 처리했다. ‘질문’ 한다는 것은 나에게 ‘부담’ 으로 느껴졌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 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사는 “언제든 어려운 게 있으며 물어보고, 부담 갖지 마. 무엇보다 인턴에게 중요한 건 질문이야.” 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 이후로 내가 받은 업무에 궁금증에 생길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 이후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내게 주어진 업무를 한 결과 하루는 상사가

나를 따로 불러 보고서가 아주 유용했다며 스페인어를 정말 잘한다고 고칠 것이 없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 나의 능력을 스스로 믿지 못했던 날 반성했고, 해보고 부딪히기 전까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날이었다.

내가 주로 하는 일

나는 ECLAC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원들과 일을 하진 않는다. 주로 상사가 내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주는데, 대표적으로 1) 보고서 작성 2) 회의록 작성하기 3) CV 찾기를 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의 경우 주로 관계 분석 및 향후 전망을 찾는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여러 정보가 여러 기관의 보고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기구의 보고서와 뉴스 기사를 찾아야 한다.

1) 보고서 작성하기

앞서 설명했듯이, 상사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다른 국가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요구한다.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지만 난 스스로 양식을 만들어 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 ODA, 무역, 외교관계 등의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세계은행, OECD, 각종 언론사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3-4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만든다. 되도록이면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따로 스페인어 표현 정리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적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뉴스 기사를 다양하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회의록 작성하기

회의록 같은 경우도 정해진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사들은 항상 바쁘고 핵심만 알고 싶어 하기에 되도록이면 핵심만 요약하려고 노력한다. 회의록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무총장님에게 보고된다. 나의 경우, 간단하게 서론을 작성한다.(사무총장 또는 회의 기획자의 개회사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한다.) 이 서론에는 이 회의의 주체 목적, 도전 과제, 향후 기대할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회의는 평균적으로 1-2시간 정도 진행되며 발언자는 보통 평균 4명이 이상이다. 나는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중 (1) 해결해야 할 과제 (2) 이 과제의 장애

물 (3) 향후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도전 과제 등을 한 발언자당 2-3줄로 두괄식으로 요약한다. 회의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직접 회의장에 UN 인턴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3) CV 찾기

상사는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보통 참석자들의 CV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난 직접 구글에 양식을 검색해서 사용한다. 주로 CV에 적는 것은 (1) 국적 (2) 학력 (3) 업무 경력 (4) 참고사항(논문, 활동 기사 등) 정도가 있다. 이 정보는 직접 참석자 이름을 구글에 적거나, 링크드인 검색 또는 직책을 맡고 있는 기구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 주로, 회의 참석자들은 고위 관료들이 많아서 근무하고 있는 기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이들의 CV를 찾으면서 이들의 경험, 이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관련 업무를 위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들의 진로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4) 기타

이 외에도 상사는 다양한 배경지식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페인에서 국제협력 관련 개정이 통과되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맡기곤 한다. 주로 주제는 회의와 관련된 배경지식이다. 이런 경우 주로, el país, BBC MUNDO, CNN español 등의 스페인어 기사를 참고한다. 또한 각국의 외교부 사이트, 대사관 사이트를 주로 참고하여 뉴스, noticias 칸을 참고한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먼저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만 요약한다. 또한, 법령의 경우 실제 법령 디지털 자료를 찾아 참고하고 관련 내용 전후 배경지식까지 함께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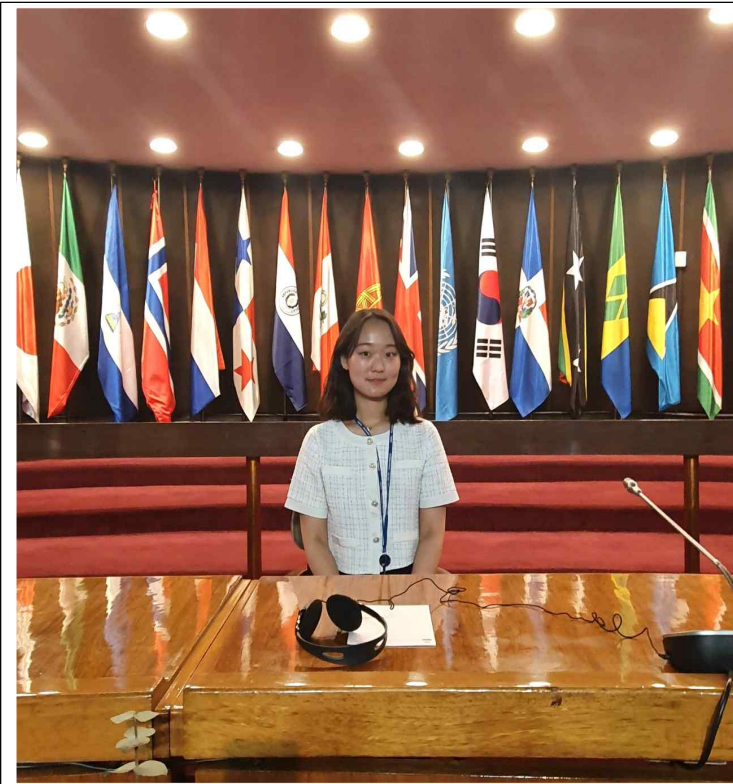
일하면서 느낀 점 & 향후 진로 계획을 생각해보다

약 3개월간 일해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무엇보다 국제기구 1순위는 '언어'다. 무엇보다 업무를 이해하려면 소통이 켈 중요한데, 언어를 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ECLAC은 라틴아메리카 또는 스페인 출신 직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미국인 동료들도 있지만, 모두 스페인어를 중급 이상으로 구사할 줄 알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이들이다. 또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영어로 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스페인어:영어 비율은 9: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모든 업무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회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UN 기구 또는 UN 산하기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해 특별 연설을 하시고 연설 후 사무총장님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업무 환경에 대해 언급하자면, 이곳은 매우 자유로운 곳이다. 꼭 정장을 갖추 입지 않아도 된다. 남자 상사들의 경우 대다수 정장을 입고 출근하지만, 그 외 직원들은 세미 정장 또는 캐주얼(청바지, 운동화)하게 입고 다닌다. 또한, 대다수 9-6시 근무지만 바쁜 일이 있는 경우 2-30분 먼저 퇴근하곤 한다. 월, 수 또는 화, 목 돌아가면서 직원 들끼리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고 상사들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 ECLAC 안에 병원, 은행, 식당, 헬스장, 카페테리아 등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점심시간은 1시간 반으로 넉넉하다.

인턴으로 일하는 것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메일을 받을 수 없고 많은 정보를 공유받을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최근 ECLAC과 한국과의 협력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으며 실제 이곳 직원들은 한국이 중요한 공여국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다. 무엇보다 친절한 동료들과 편안한 업무 분위기가 너무 만족스러운 나는 이곳에 인턴이 아닌 컨설턴트로 다시 오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 외에도 향후 JPO, UNV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일해보고 싶은 장기 목표까지 생겼다.



ECLAC sala Raúl Pr
ebisch
라울 프레비쉬 회의
장



ECLAC 정문에 있는
UN로고와 CEPAL 글
자



ECLAC Sala CELSO
FURTADO
셀소 푸르타도 회의
장